

장애인사역-사역내역

◆ 온누리 장애인봉사단

- 차량봉사 - 장애인 및 노약자의 교회출석 및 외출 시 동행
- 심방 - 목욕, 이발, 미용, 청소 등 재가중증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방문봉사
- 상담 - 신앙상담, 건강상담, 결혼상담, 취업상담, 법률상담

◆ 북한외 장애인

- 북한장애인의 실상파악
- 판문점이나 기타경로를 통해 직접방문, 지원(휠체어를 비롯한 보장구, 성경, 의약품, 식량)

◆ 시신 및 장기기증 운동(장애인 중심)

- 안구 및 신장 이식
- 장기 및 시신 기증(소천 직후)

◆ 장애인관련자료 전산화

- 재활시설, 단체, 병원, 논문집 및 해외장애인관련자료 수집

◆ 교회내 장애인시설 설비

- 엘리베이터, 경사로, 리프트, 장애인전용화장실, 장애인주차장(주차마크)

◆ 장애인차량운행

- 장애인용 리프트가 장착된 이스타나(15인승봉고-쌍용자동차)
- 운전 - 교회내 자원봉사자
- 주차스티커-교회에서 제작, 발급

◆ 장애시설 및 사역지 방문선교

찬양선교 - 장애인 중창단, 합창단

◎ 누리사랑

누리사랑은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애형제, 자매들과 장애인의 선교와 재활, 복지에 관심과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나보다는 우리, 우리보다는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우를 돌보며 북한의 장애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993년 7월 첫째 주일, 하용조 목사님의 권면으로 장애우와 중증장애우의 보호자를 포함, 11명이 첫 모임을 가진 이래 300명이 넘는 분이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70여명의 회원이 매주일 선교관 지하2층 콘서트홀에 모여 장애인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주

님 안에 하나 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주보를 작성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며, 응답된 기도의 내역을 간증하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리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장애우를 전도하며 새로이 모임에 참여하는 장애우에게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된 지체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2000명선교사 / 10000명 사역자의 한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있는 장애인주일에는 사랑부와 연합하여 2부예배 시간에 찬양, 간증, 슬라이드상영을 통해 장애우의 삶을 전하고 점자주보를 제작하여 시각 장애우에게 배부해드리며 장애우의 모습을 앵글에 담은 작가들의 사진전과 다과회를 가집니다.

매주 수요일 선교관 3층에서는 나라와 교회와 장애인의 선교를 위한 수요기도모임이 열리며 교회인근의 쌍용공원, 용산 가족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고 회원들의 가정에 초대되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사랑이 깊어갑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등지에서 6회째 하계수련회, 동계수련회로 모여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친교를 나눴으며 전신마비, 하반신마비, 뇌성마비, 편마비, 소아마비, 근이양증, 파킨스씨병과 시각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다수 참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된 이래 다섯 명의 장애우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주님의 은혜로 귀여운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박진영 형제는 97년 장애인의 날에 루즈벨트재단이 수여하는 올해의 장애 극복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누리사랑중창단은 사랑의 음악회와 교회행사에서 헌금송과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자원봉사자들은 매주일 휠체어를 탄 장애우들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누리사랑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한 두 사람의 인간적인 의지나 의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모든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리사랑가족은 온누리교회에 장애인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의 장애인선교와 복지에 헌신할 것을 서원합니다.

◎ 사랑부

사랑부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장애아동 주일학교로서 1989년 유치부에서 1명의 장애아동으로 시작하여 정신지체와 자폐라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모여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아동의 연령과 여러 발달 측면을 고려하여 유아부로부터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통합예배와 일대일교육을 기본 방침으로 찬양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만나 예배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봄, 가을 야외예배와 여름,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사랑하게 되어 아동과 교사의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부모와 교사의 모임인 장애인부모회 모임을 갖고 있으며 목사님과 전문가들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부모님끼리 일대일 양육을 하기도 합니다.

94년부터는 여름수련회를 가족수련회로 모여 부모님들이 말씀안에서 양육되고 내적치유를 받는 시간으로, 장애아동의 언니, 오빠, 동생들은 그들의 형제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막10:14)”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의 많은 장애아동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 이 아동들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자녀로 인해 받은 상처가 치유되며, 사랑부 선생님들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아동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변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장

변동코이노니아는 온누리 선교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서 지체장애인들의 봉제작업장인 ‘코이노니아’와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작업재활시설인 ‘예손’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인 ‘예수향기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에는 소아마비, 약시, 편마비, 청각장애, 정신지체장애 등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지체들이 모여 재활을 위해 의류를 제작 판매하는 봉제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록 팔, 다리는 성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감싸주며 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랜드그룹의 의류하청작업과 함께 자체 브랜드로 만든 옷을 온누리교회 바자, 서울국제부인회 바자, 이화여고동창회 바자 등에 출품하여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정성껏 만든 옷이기에 많은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임받고 기쁨을 주는 작업장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모델 정신지체장애 인보호작업장으로 선정된 예손은 현재 13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모여 스텐실을 이용하여 상품 디자인 및 인테리어 소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통해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가정과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자 기도하며 국제부인회 바자의 출품 및 온누리교회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손의 설립 목적은 정신지체장애인들과 그 가정이 복음을 통해 영적, 사회적, 경제적 재활을 도모하는 것과 그들 안에 숨겨진 재능과 은사를 계발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모회와 자원봉사자모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 및 중보가 활성화되도록 간구합니다.

반동코이노니아가 위치한 강북구 번2동 주공아파트 5단지는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으로 연로한 어른들이 외로움과 질병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많으며 장애인 가정이 전체 세대의 20%를 넘고 있습니다. 빈곤과 장애의 이중고를 안고 살아가는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1995년 6월, 온누리교회 예수향기회의 지원과 복누리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교우들의 자원봉사로 매주 화, 목, 토 점심시간에 120명의 노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며 전도와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밝은 얼굴로 찾아 오셔서 식사를 나누기에 앞서 성경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며 육의 양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도 더욱 성심껏 섬기고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반동코이노니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찬양하며 정성과 성심으로 작업에 임하는 장애인 형제, 자매들과 믿음 안에 함께 하시는 노인 어른들, 온누리교회의 헌신자학교를 마치고 사역을 섬기는 간사들의 뜨거운 기도, 여러 해 동안 겸손히 낮아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봉사자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들의 사랑이 한데 어우러져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신앙공동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반동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장애인공동체로서 서로를 품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곳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 교회내의 장애인가정 현황

우리 교회에는 의외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환으로 거동을 못 하는 어른들, 선천성 장애자녀를 둔 가정, 각종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며 고통 받는 성도들, 상처받은 영혼들, 여러 유형의 성인장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으며 이제는 교회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돌보는 가정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이며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권사님들 덕에는 마흔살이 되도록 바깥출입을 못해본 중

증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권사회나 교회의 행사가 있어 나오시려면 누군가 대신 돌보아줄 손을 구해야하는데 병이 길어지다 보니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아동이나 병환 중에 계신 노부모님을 모신 집사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장애인이나 장기환자들을 숨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애는 이제 더 이상 흉이나 허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난 때부터 소경된 자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껏 숨겨지고 가려져왔던 우리들의 아픔과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권사회와 안수집사회, 순과 다락방을 통해 장애인, 노인, 병약자, 소년소녀가장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소재와 현황을 파악하여 교회 내에 봉사단을 결성하는 사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96년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내신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봉사과 화합의 정신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돌보는 정신을 함양시킨다는 교육적 취지에 맞춰,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학부, 청년부의 뜨거운 사랑을 지닌 형제, 자매들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일서 3:18)

온누리교회는 이 시대에 노약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상처받은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긍휼사역의 본이 되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6)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온누리교회 먼저’ 운동

온누리교회는 일반 사회단체가 벌이고 있는 ‘장애인먼저운동’이 전개되기 전부터 ‘온누리교회 먼저운동’을 시행해 왔습니다. 회중석 앞자리를 장애인석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주시고 성도님들은 휠체어가 이동할 때 웃는 얼굴로 길을 열어주시며, 식당 배식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보해 주십니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비롯해 파킨슨씨병과 근이양증 장애를 가진 지체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성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준공된 선교센터교육관 건립을 계기로 장애인전용화장실과 장애인용 버튼이 설치된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를 설치했으며, 본당에서 선교센터교육관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경사로와 구름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누리 신문사에서는 ‘장애인을 데려오라’는 타이틀로 연중 지속적인 장애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96년부터 주일에는 교회앞 주차공간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선포하여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차량이 어느 주일에는 7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타나(휠체어용 리프트가 장착된 봉고)장애차량의 운행과 함께 성도님의 양보와 사랑으로 장애인차량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음이며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마크를 손수 그려주신 하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물을 통한 무언의 메시지가 온누리교회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께 도전과 감동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섬기시는 교회에 돌아가서 장애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의 계단과 턱을 낮추고 개조하는 운동이 물결이 퍼지듯 널리 확산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 '88 장애인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사업은 1988년 10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8회 장애인올림픽(paralympic)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1984년 6월 4일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4년 간 대회개최를 준비하는 동안 공항, 경기장, 선수촌, 기타 숙박시설, 도로, 교통수단 및 부수시설, 통신시설, 기타 물리적 환경에 관한 편의시설의 정비에 착수하게 되어, 도로의 턱 없애기, 특수차량의 보급, 화장실의 개조, 승강시설의 정비, 기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전 국민은 TV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장애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 펼치는 눈물겨운 인간승리의 드라마를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장애인복지에 대한 법령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복리증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괄목할만한 일은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장애우보철차량(발로 조작해야하는 페달을 핸들에 이동, 부착하여 손으로 완벽하게 조작이 가능한 차량)을 생산·보급함으로써 오랫동안 휠체어에 의지하여 집안에 갇힌 채 외부세계와 단절되었던 많은 장애우(하반신마비, 소아마비, 뇌성마비, 편마비, 지체장애, 발육장애, 청각장애)들이 이 차량의 도움으로 외부 출입이 가능해졌으며 장애정도에 따라 직업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일시에 시행됨으로써 소외되

있던 많은 장애우들이 새 삶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면에서 획기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장애인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결실했지 못하였거나 아직도 요원한 일로 남아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산업체의 적극적인 동참과 장애인 가족과 관련 단체가 합심하여 일을 추진해나갈 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장애인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미국의 복지도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몸소 실천한 교회와 행함이 있는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며,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장애인사역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기도드립니다.

◎ 교회를 통한 장애인 가정구원

장애는 선천성장애로부터도 기인하지만 최근에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질병 등에 의한 후천적장애가 88.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국의 200만 장애우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장애우는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원망하며 좌절과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 가족들도 고통의 멍에를 짊어진채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교회는 영락농아인교회(강주해목사님), 한맹교회(박석권목사님), 광주임마누엘교회(박영식목사님)를 비롯해 전국에 농아인교회 100개, 지체장애인교회 35개, 맹인교회 15개, 정신지체인 주일학교 30개등 총 180개 교회가 있고, 장애인복지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교회는 26개 교회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때에 전국의 4만 교회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한 가정씩만 전도하고 돌보면 한가족을 5인 기준으로 볼 때 20만명이 주님의 사랑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10가정을 돌보면 200만명의 장애인가족이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베드로전서 4:9,10)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장애인,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이 전국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봉사를 통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 북한의 장애인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험벗고 굶주린채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접하며 같은 민족으로서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평양에 한 사람의 장애인도 없다고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장애인이 없어서가 아니고, 장애인들을 산골 오지로 격리, 수용한 채 이들이 스러져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 오늘날 이와 같이 처참한 생활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얼마나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북한 땅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에게 식량을 보내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구필화달력 수익금을 북한땅의 장애인들에게 보내는 사업에 쓰고자 합니다.

또한 오지에 격리, 수용된 채 열악한 환경에서 단종정책으로 스러져가는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택하시고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한민족에게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때 이들을 전국의 교회가 따뜻이 맞이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 사랑의 구현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영육이 시들어가는 북한 동포와 장애인을 위해 우리 모두는 진정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장애인과 컴퓨터

몇해 전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박사가 서울을 다녀갔습니다. 루게릭병이라는 어려운 질병에 의해 보고 듣는 것외에는 신체의 거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그가 휠체어에 앉아 컴퓨터에 의해 합성된 음성을 통해 우주의 신비에 대해 강연하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만약 그가 루게릭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또 컴퓨터가 없었다면 오늘의 호킹박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지능이 떨어지거나 사회적응이 어려운 이들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애유형에 따라서는 컴퓨터를 통해 얼마든지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이들은 언어구사가 힘들지만 키보드를 통해 능히 자신의 의사전달과 문학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전문프로그래머로서 활약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신마비장애를 입은 윤영훈 씨는 입으로 자판을 두드리며 노력하여 컴퓨터에 관한 책을 출간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컴퓨터통신을 통해 초보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보급은 장애인세계에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늘 집안에 갇혀 지내는 중증장애자들은 통신을 통해 정보와 친교를 나눌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많은 자료를 접하고 세계의 여러나라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통신망이 구축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신선교회를 조직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는 가격 면에서 고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집이나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되는 장기저리금융의 폭을 확대하여 컴퓨터 구입시에도 적용을 해주고 컴퓨터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무상이나 장기할부 등의 지원을 한다면 점차 수혜폭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컴퓨터교육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장애인가정을 방문하여 가르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내에 장애인을 돕는 동아리(써클)를 만들어 여러 학생이 번갈아 지도하면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시편 87:5)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전국의 교회와 학교를 통해 메아리치도록 기도합니다.

◎ 장애등급 분류표

- 제 1 급 장애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할 장애를 당해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 2 급 장애

1. 한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 제 3급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 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제 3 급 장애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 4 급 장애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제 5 급 장애

1.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0. 코가 결손 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 6 급 장애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 해설

1. “ 평생간호 ”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 일상생활의 동작 제한 ”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 시력에 잃은 것 ”
시력이 0.02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 시력의 뚜렷한 장애 ”
시력이 0.06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

가.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즉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데시벨 (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 (a + 2b + 2c + 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 청력의 뚜렷한 장애 ”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

코뼈의 1/2 이상이 결손 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 “ 팔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가. “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 손가락의 장애 ”

가. “ 손가락을 잃은 것 ”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 발가락의 장애 ”

가. “ 발가락 잃은 것 ”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첫째발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 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1,2,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